

# ‘의료한류’ 세계로 뻗어나가는 Medical Korea

중동·중앙아·아세안 등 신규 시장 진출 활로 ... 정부간 보건의료협력 구축으로 글로벌 위상 변화 ‘실감’

글\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협력사업단 양지영 연구원

최근 한류열풍이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며 그 파급력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류 초기만 해도 드라마에 많은 관심이 집중 되었지만 최근엔 K-POP에 이어 한국의 헬스케어분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의료한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적절한 비용에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의 국가간 이동을 확산시키며, 외국인환자 유치뿐 아니라 보건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해외진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컴퍼니는 도시경쟁력 보고서에서 의료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전제된다면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6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의 의료수준은 OECD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IT 기반의 첨단 의료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의 헬스케어 분야는 국제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OECD가 발표한 ‘보건의료 질 지표’에서 한국의 뇌졸중 진료성과는 세계 1위였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진료성과는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의술은 장기이식, 관상동맥 우회술, 척추, 관절, 미용성형, 불임 치료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명의 세계의사들이 국내 병원을 방문하여 한국 의료기술을 배우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 헬스케어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의료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2009년 외국인환자유치 행위허용 의료법 개정과 정부의 기반제도 마련을 통해 국부창출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 의료브랜드 Medical Korea 기치아래, 의료강국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마케팅,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 병원해외진출 등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Medical Korea는 외국인환자유치 12만 명 시대를 맞이하며, 신흥시장의 확대와 함께 전략국가인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 보건의료협력 성과를 거두며, 그 어느 해보다 세계 속에 Medical Korea의 위상을 굳건히 다진 한해로 평가받고 있다.



■ 표 1.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환자수	60,201명	81,789명	122,297명
증가율	-	35.9%	49.5%



## Medical Korea, 글로벌 헬스케어 중심국으로 우뚝서다

### · 글로벌헬스케어 아시아 최대 국제행사, 2012 Medical Korea Conference

2012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글로벌헬스케어 분야 세계적 규모의 국제행사인 2012 Medical Korea Conference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한국을 아시아지역의 글로벌 헬스케어 선진국으로 이끌었다.



한국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헬스케어분야를 리드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0년 4월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를 맞이한 Medical Korea Conference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행사로서, 올해는 한국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흥시장 맞춤형 미래전략'을 주제로 전세계 36개국 약 7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년도와는 다르게 신흥시장 보건부와 국영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 나라 현지 의료수요와 한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또한 주요 부대행사로 한국병원 체험행사, 비즈니스미팅, 중국 뷰티샵 경영인들을 위한 초청행사, 나눔의료 기념행사, 외국인환자 식단 전시 및 교육 세미나, 중동국가 비즈니스 포럼 등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함께 진행되어 Medical Korea Conference를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국제행사로서 그 입지를 굳건히 하는 한편, 한국을 헬스케어 선진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 한국의 나눔의료를 세계와 함께 나누다

2012년도 상반기 Medical Korea 나눔의료는 2012 Medical Korea Conference를 통해 '나눔의료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Medical Korea 나눔의료'는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의료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현재는 우수한 의료강국으로 발전하여 그 노하우와 선진기술을 주변국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해외 저소득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시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1년에는 총 9개국 32명이 한국으로 초청되어 새로운 삶의 희망을 되찾았으며, 2012년도에는 총 17개국 68명의 환자들이 초청되어 무료시술을 지원받고 있다.



더욱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자리에 모인 세계 헬스케어 관계자들과 함께 한 '2012 나눔의료 기념 행사'는 의료 나눔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후원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함께, 한국으로 초청되어 무료시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눔의 의미를 나누고, 활동을

· 중동 UAE에 제2의 의료한류 열풍을 이끈다

2011년 외국국가와는 최초로 UAE 아부다비보건청과의 환자송출 협약식 체결로 중동실크로드를 열어가며, 중동 의료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Medical Korea는 2012년 5월 UAE 현지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양국간 전방위적 보건의료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아부다비 현지에서 Medical Korea Workshop in Abu Dhabi를 개최했다.

약 150여명의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한국의료홍보회(Medical Korea Work-



shop in Abu Dhabi)는 아직은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UAE에서 국내 8개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여 각 의료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본 행사는 UAE에서는 최초로 아부다비보건청과 외국 보건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의료

홍보회로 현지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양국간 환자송출 협약식 체결이후 국가간 전략적 유대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본 행사와 함께 아부다비보건청과 국내 4개 의료기관들(신촌세브란스, 이대목동병원, 차병원, 우리들병원)과의 2단계 환자송출계약 체결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영보험사 다만(DAMAN)과의 MOU체결, DAMAN과 8개 국내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 체결(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



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차병원, 보바스병원)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UAE 환자송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한류 기대 - 한국 의료홍보회 개최

동남아시아 최대 잠재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지역주민 대상 의료봉사 실시와 함께 한국의료 홍보를 위한 현지 의료인 대상 학술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유치 채널 발굴과 함께 향후 양국간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진출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다.

향후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확대를 위한 보건부간 MOU 추진과 함께 국내 5개 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JK 성형외과, MVP 성형외과)이 참여하여 현지에서 약 5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의료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Medical Korea 나눔의료와 연계한 본 행사를 통해 책임 있는 의료강국 Medical Korea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함께 나눔의 의미를 전달했다.

· UAE군과 MOU체결, 중동 보건의료분야 진출 확대



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UAE Armed Forces (UAE 군)간 보건의료분야의 실질적 협력추진을 위한 합의서 체결을 통해 중동 환자유치 및 한국 보건의료분야 진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본 협약식은 양국간 4개 한국 의료기관(서울대

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으로의 UAE 군인과 가족 환자들의 송출, 의료진 교환프로그램(Visiting Physician Program), 한국 U-Health 시스템 구축지원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연간 약 4,000여명의 환자를 해외로 보내고 있는 UAE군 쪽의 한국으로의 환자송출이 시작된다. 계약초기에는 UAE군 총 해외 송출환자의 약 10%인 400여명의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200억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기대된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Medical Korea 위상을 세우다

· 중동과의 보건의료협력 확대

중동국가들은 자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향상을 위해 해외진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낙후된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막대한 투자지원을 준비하는 등 의료산업시장의 거대한 시장이다. 또한 문화적, 환경적 생활 습관에 따른 만성질환 및 암 발생률 증가로 의료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

수준은 열악하여 선진화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2년 Medical Korea는 중동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체결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중동진출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최근 우리나라와의 보건의료분야 수요가 급증하며 중동시장 진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는 2012년 5월 국내 4개 의료기관(연대 세브란스, 강남차병원, 이대목동병원, 우리들병원)과 2단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보바스 기념병원의 두바이 재활병원 위탁운영 선정, UAE군 환자송출 합의서 체결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UAE 현지 공공병원의 위탁운영, 의료인 연수프로그램(Visiting Physician Program), 한국 U-Health 시스템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구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 등 국내 보건 의료산업 동반진출을 위한 국가간 협력기반의 내실을 다졌다.

2012년 한국과의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진출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사우디 정부차원에서 100억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86개 신축병원을 포함한 162개의 의료시설 건설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Medical Korea는 한국 병원정보시스템의 사우디 도입 및 공공병원 위탁운영, 의료인력연수 등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며 2012년 2월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Executive Program”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 개최된 제 7차 한-사우디 경제공동위를 통해 6개 분야(의료인연수, 한국 의약품 수입, 공동연구,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환자송출, 공공병원 위탁운영 등)의 보건의료 합의를 마련하고, 관련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 향후 협력분야를 협의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보건의료협력 기반을 다졌다.

· **중양아 국가들과 보건의료협력기반 구축**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는 탈 소련체제 이후 낙후된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정책이 각 국가별로 진행 중에 있어 보건의료분야 진출의 전략국가로 꼽히고 있다. 또한 1991년 구소련 체제 독립 이후 2012년 한국과는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며 Medical Korea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주요 의료관광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와는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러시아 연해주 보건 국가간 MOU를 체결하고 한-러 의료산업교류회를 통해 정부 관계자간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부간 의료행사로 제 1차 보건의료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간 보건의료협력의 전기를 마련하고 양국간 실질적인 보건의료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하여 준비 중에 있다.

러시아권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의료관광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의료진, 의료 장비, 긴 대기시간 등에 대한 불만으로 해외의료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5월과 10월 국내 대표단의 잇단 방문을 통해 한-카자흐 보건의료협력 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합의하여 질병예방에서 재활까지 Total Health Care 협력을 확대하고, 환자송출, 의료인연수, U-Health 등 병원현대화 사업분야의 협력을 도출하여 양국간의 실질적 보건의료분야 교류가 가능한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5월 한국의료홍보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의료시스템을 현지에 홍보하고 현지 환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양국간 환자송출, 의료인 연수, U-Health System 수출 등 우즈베키스탄 공공병원 현대화 사업부문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7월과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현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 방한으로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설립과 병원 위탁운영과 관련된 국내 의료기관들의 참여 방안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보건의료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 우호감을 가지고 있는 몽골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 및 의료기관간 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되며, 한국 공공 및 민간차원의 의료봉사활동 및 ODA 등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간협약체 운영을 통해 7월 몽골 의료인 장기 임상연수를 시행, 약 19명의 현지 주요 공공병원 의사를 한국의료기관에 초청하여 6개월간 장기 임상연수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료기술을 직접 전수하는 한편, 한국과의 장기적인 보건의료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 세계속의 의료강국 Medical Korea

2011년 우리나라는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약 122,297명을 기록하여 2009년 사업시작 3년 만에 환자 수는 2배, 진료수익은 3.3배 증가하며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를 향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헬스케어에 이끌려갔던 Medical Korea는 대한민국이 세계속에 책임 있는 의료강국으로 함께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안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밖으로는 병원 해외진출을 연계하여 한국의 헬스케어 시장을 세계 속에 이끌어 갈 것이다. □